

한국사 영역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⑤	2	③	3	⑤	4	⑤	5	②
6	③	7	②	8	①	9	③	10	③
11	②	12	④	13	④	14	④	15	①
16	⑤	17	②	18	⑤	19	⑤	20	①

해설

1. [출제의도] 신석기 시대 이해하기

밀줄 친 '이 시대'는 신석기 시대이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고, 빗살무늬 토기와 간석기 등을 사용하였다. ①은 신라, ②는 청동기 시대, ③은 조선 등, ④는 철기 시대 이후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고려 전시과 이해하기

(가) 제도는 전시과이다. 전시과는 전현직 관리 등에게 전지와 시지를 함께 지급하여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①은 대한 제국의 지계 발급 사업, ②는 화폐 정리 사업, ④는 균역법 등, ⑤는 방곡령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조광조 이해하기

(가) 인물은 조광조이다. 조광조는 사림의 여론을 앞세워 일부 훈구 세력의 공훈 삭제, 현량과 실시 등 개혁을 추진하다 기묘사화로 축출되었다. ①은 홍선 대원군, ②는 장보고, ③은 묘청 등, ④는 이성계에 해당한다.

4. [출제의도] 고려 문화 이해하기

(가) 국가는 고려이다. 개경을 수도로 한 고려는 상감 청자, 팔만대장경판 등을 남겼다. 또한 고려 시대에는 김부식 등에 의해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①은 신라, ②는 발해, ③은 조선, ④는 조선 등에 해당한다.

5. [출제의도] 조선 정조 이해하기

(가) 왕은 조선의 정조이다.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화성을 건설하였으며, 규장각을 육성하였다. ①은 신라 지증왕, ③은 고려 성종 등, ④는 조선 고종, ⑤는 고려 공민왕에 해당한다.

6. [출제의도] 고려 통치 기구 이해하기

(가)에 들어갈 통치 기구는 중서문하성이다. 중서문하성은 고려 시대 국정을 총괄한 최고 관서이다. ①, ④, ⑤는 조선, ②는 신라의 통치 기구에 해당한다.

7. [출제의도] 고려 대외 관계 이해하기

(가) 왕조는 고려이다. 고려는 12세기에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육관의 건의로 별무반을 창설하였고, 여진을 공격하여 동북 9성을 쌓았다. 또한 고려의 강감찬은 1019년 거란(요)의 침입을 귀주에서 물리쳤다. ①, ③은 백제, ④, ⑤는 조선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독립 협회 이해하기

밀줄 친 '이 단체'는 독립 협회이다. 독립 협회

는 기금을 모아 독립문을 건립하였고,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였다. 관민 공동회는 헌의 6조를 결의하여 고종에게 건의하였다. ②는 고려 수선사 등, ③은 의병 연합 부대인 13도 창의군, ④는 신라 화랑도, ⑤는 조선의 비변사 등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7세기 대외 관계 이해하기

(가)의 안시성 전투는 645년, (나)의 고구려 멸망은 668년의 사실이다. 신라와 당은 648년에 동맹을 맺었다. ①의 발해 건국은 698년, ②의 이차겸의 난은 1126년, ④의 교정도감 설치는 고려 최씨 무신 정권기의 사실이다. ⑤의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것은 기원전 194년의 사실이다.

10. [출제의도] 을사늑약 이해하기

(가)는 을사늑약이다. 일제는 을사오적을 앞세워 고종의 허락 없이 을사늑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대한 제국의 외교권이 일제에게 넘어갔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고종은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다. ①의 비변사는 조선이 여진족과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②는 서희의 외교 담판, ④는 강화도 조약, ⑤는 뎡진 조약에 해당한다.

11. [출제의도] 병자호란 이해하기

자료에 나타난 전쟁은 병자호란(1636 ~ 1637)이다. 조선의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맞서 싸웠으나 항복하였다. 이후 조선에서는 청을 정벌하여 청에 당한 치욕을 씻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북벌론이 대두하였다. ①의 백제 멸망은 660년, ③의 전주 화약 체결은 1894년, ④의 개경 환도는 1270년, ⑤의 외규장각 도서 약탈은 1866년의 사실이다.

12. [출제의도] 갑신정변 이해하기

밀줄 친 '정변'은 갑신정변(1884)이다. 급진 개화파는 우정충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정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정변은 3일 만에 진압되었다. 조선 건국은 1392년, 인조반정은 1623년, 흥경태의 난은 1811년, 강화도 조약 체결은 1876년, 대한 제국 수립은 1897년, 국권 피탈은 1910년의 사실이다.

13. [출제의도] 무단 통치 이해하기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이다. 일제는 1912년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하였다. 또한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①은 신라, ②는 고려, ③, ⑤는 조선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다.

14. [출제의도] 국제 보상 운동 이해하기

(가) 운동은 국제 보상 운동이다.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측이 심해지자, 일본에 진 빚을 갚고 국권을 지키자는 국제 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국제 보상 운동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① 갑오개혁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갑신정변, 동학 농민 운동 등이며, ②는 묘청 등의 서경 천도 운동, ③은 임술 농민 봉기, ⑤는 독립 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에 해당한다.

15. [출제의도] 병인양요 이해하기

밀줄 친 '이 사건'은 병인양요(1866)이다. 병인양요는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이다. 이때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양현수 부대가 정족산성(삼랑성)에서 프랑스군에 맞서 싸웠다. ②는 을미사변 이후, ③은 고려 후기의 사실이며, ④ 삼별초의 항쟁은 고려 정

부의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발생하였다. ⑤ 광해군은 후금이 성장하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다.

16. [출제의도] 임오군란 이해하기

(가) 사건은 임오군란(1882)이다. 임오군란은 구식 군인들이 개화 정책 추진과 별기군파의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일으켰고, 이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①의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고, ②의 천리장성은 외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고려 등이 축조하였다. ③의 사심관 제도는 고려에서 호족 통제를 위해 시행되었고, ④의 척화비는 신미양요 이후 세워졌다.

17. [출제의도] 동학 농민 운동 이해하기

(가) 운동은 동학 농민 운동이다. 전봉준 등이 이끈 동학 농민군은 '보국안민'과 '제족구민'을 내세웠으며, 일본의 간섭에도 저항하였다.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동학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 개혁을 실천하였다. ①의 태학은 고구려 등이 설치하였고, ③의 매소성 전투는 나당 전쟁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④의 대한민국 국제는 대한 제국, ⑤의 최씨 무신 정권 수립은 고려에 해당한다.

18. [출제의도] 신민회 이해하기

(가) 단체는 신민회이다. 신민회는 안창호, 양기탁, 이동녕 등이 조직한 비밀 결사 단체로, 태극서관을 경영하였고, 평양에 대성 학교를 설립하였다. 또한 국의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①은 조선의 세종, ②는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생 등, ③은 동학교도, ④는 고구려의 장수왕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민족 말살 통치 이해하기

밀줄 친 '이 시기'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이다. 일제는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하여 많은 한국인을 군인, 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또한 황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 ① 고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② 조선 고종은 제2차 갑오개혁 때 흥분 14조를 반포하였다. ③ 고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고, ④ 백제 무령왕은 22달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

20. [출제의도] 조선 후기 사회 이해하기

교사가 설명하고 있는 시기는 조선 후기이다.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며 향촌 질서가 변화하였다. 재산을 축적해 부유해진 사람들은 공명첩, 납속책 등으로 신분을 상승시켰고, 향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조선의 순조 때는 중앙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가 해방되었다. ②는 일제 강점기, ③, ⑤는 신라, ④는 고려에 해당한다.